

평형대별, 연대별 아파트 욕실의 변화 - 서울시의 1970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Bathroom Plans of Apartments Constructed of Seoul from 1971 to 1995

이 영 심* 신 경 주**
Lee, Young Shim Shin, Kyung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for a desirable bathroom plan of apartments. As a first step in this process, we analyzed the bathroom plans of the existing apartments. The collected data are consist of 493 cases of the bathroom plans of the apartments (area: 10-69 pyung) constructed in 8 sections in Seoul from 1971 to 1995 where 65,801 households live. In this study, the numbers, location, size, and proportion of the bathroom and dressing room, and the direction of the bathroom door in apartments are examin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We have found that the numbers of bathrooms to increase in more than 20s pyung apartment since 1990. 2) Except a master bathroom, the another one for the guest is located in entrance in more than 40s pyung apartment. 3) The door of the bathroom faces corridor in more than 40s pyung apartment. So, it is possible for them to lessen discomfortness when they coming in and out of the bathroom. 4) It was found that the size of bathroom were decreased in most cases. 5) They did not plan a dressing room in 10s pyung - 60s pyung and the size of dressing room was decreased in 60s pyung apartment.

I. 서 론

현대의 욕실은 단순히 생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필수적이던 위생 공간에서 생활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휴식적인 기능까지 갖춘 복합적인 건강 관리 공간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욕실이 주택 내부에 완전하게 자리잡게 된 것은 1970년대 아파트의 건설이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는 욕조, 세면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베스유니트형이 아파트의 전형적인 욕실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정착된 베스유니트형의 욕실은 우리의 주생활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그 만족 정도가 낮으며 거주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욕실을 원하고 있었다(신경주, 정경숙 1989; 이영심, 신경주 1989; 강순주 외, 1989; 서동연, 1990; 탁순애, 1990; 조명은, 1993). 베스유니트형 욕실에 대한 불만의 요인은 욕조 사용시에 변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변기에 물이 튀고 습기가

차는 점, 가족원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손님이 방문한 경우는 목욕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최근 들어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욕실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가족원이 많아질수록 희망하는 욕실의 수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신경주·정경숙 1989; 조명은, 1993). 욕실의 휴식적인 기능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욕실의 면적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욕실 면적에 대한 만족 정도는 대체로 낮았는데 이는 욕실에서의 행위와 이에 따른 동작의 크기 그리고 거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욕실을 계획함에 따른 결과이다(홍진수, 1983; 이상돈, 1984; 이현주, 1984; 박혜선, 1986). 따라서 한정된 공간에서 거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동안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여 거주자의 주생활과 입주 후의 평가를 소홀히 하여

*정희원,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교수
*정희원,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강사

왔다. 즉,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양식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욕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결과 오늘 날 많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과 실제 생활의 괴리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욕실이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앞서 우리의 욕실 사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욕실의 수나 형태, 면적뿐 아니라 욕실의 위치와 욕실 문의 개폐 방향 그리고 점차로 그 요구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탈의실까지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욕실 평면에 대한 연구는 연구 범위가 특별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혹은 대상 아파트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아파트 욕실 평면의 연대별, 평형별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주자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욕실 평면을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료 분석법을 사용하여 서울 지역의 여덟개 구에 건립된 10평형대-60평형대 아파트 욕실 평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욕실 평면이 평형대별로 그리고 연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과 아울러 앞으로 아파트 욕실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욕실 관련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욕실 계획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1970년대-1990년대까지의 아파트

욕실 평면의 연대별 변화를 고찰하였다.

평면 분석의 대상 지역은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가장 많은 아파트가 건축된 서울의 서초구, 영등포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의 8개구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평면은 1971년-1995년 사이에 건립된 10평형대-60평형대에 속하는 493개로 이 평면의 거주 세대수는 65,000세대 이상이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의 평면이 구(區)별, 연대별로 정리 발간되고 있는「아파트 백과」¹⁾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욕실 평면의 상세에 대한 파악이 힘든 경우는 직접 관련 아파트에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 사례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한 평면은 493개이었다. 각 평면형에 따라서 거주가능 가구수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 내용

평면 분석의 내용은 욕실 사용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욕실 계획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항목으로 욕실의 수와 형태, 욕실의 위치, 욕실 문의 개폐 방향, 욕실 면적,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의 5개 항목으로 하였다. 먼저, 욕실의 형태는 기존 욕실의 평면분석에 대한 고찰 결과 아파트의 욕실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베스유니트형,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 베스유니트가 두 개 있는 형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²⁾. 욕실의 위치는 크게 현관에 인접한 형, 침실 쪽에 인접한 형, 주택의 외벽에 위치한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문의 개폐 방향은 거실 쪽, 복도 쪽, 주방 및 식당 쪽, 현관 쪽으로 분류하였다. 탈의실의 형태는 크게 안방의 욕실에 독립된 탈의실이 있는 형태, 두 방 사이에 탈의실이 있는 형태 그리고 세면

표 1. 아파트 규모별 욕실 형태의 연도별 분포

평형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합계		
	71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10	1		2	9	4			1	3	2	1	1				1	7	1	3				1	37
20	1	1	1	5	10	17	4	4	3	95	6	4	3	11	8	17	16	9	4	3	6	7	5	153
30	1	2	2	3	7	23	9	7	1	6	10	7	4	8	3	19	16	17	6	4	9	7	12	182
40	1	3	1		2	10	7	4	3	5	4	3	3		4			2	4	2	3	2	3	66
50			3	2	5	7	4	4		3	2	1	1	1		2						1	2	39
60			3	1	1	4	1			1	1					3				1				16
합계	4	6	10	13	34	65	25	20	4	24	26	17	12	23	11	46	39	29	17	10	18	17	23	493

대와 함께 계획된 세면·탈의실 등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옥실 수와 형태

아파트 규모별 옥실 수와 형태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10평형대의 옥실 형태는 베스유니트형,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의 두 가지 형태이었으나 70년대-90년대까지 10평형대의 옥실 형태는 베스유니트형이 일반적이었다.

다음으로 20평형대를 살펴보면 이 경우도 베스유니트형이 일반적이었다. 연대별로 보았을 때 70년대의 경우는 대부분 옥실 수가 한 개이었으나 80년대와 90년대에는 두 개인 경우가 간혹 있었다.

다음으로 30평형대의 경우는 베스유니트형,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 세면·탈의실과 욕조·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의 순으로 가장 다양한 옥실 형태가 분포되어 있었다. 옥실 평면의 변화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80년대에는 다양한 평면이

공존하다가 90년대가 되면서 베스유니트형과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감소하고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19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의 평면을 분석한 박길용(1990)의 연구에서는 단위면적이 128㎡(36평) 이상인 경우에 두 개의 옥실을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90년 이후 36평 이하인 평면에서 두 개의 옥실을 계획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옥실이 두개인 경우에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보다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이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보다 옥실 면적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옥실 두 개의 잇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의 경우는 대부분이 베스유니트형을 가족용 옥실로 세면대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을 부부용 옥실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방이 탈의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부용 옥실에 베스유니트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표 2. 아파트 규모별 옥실 수와 형태

평형대	옥실 형태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	b.u.형	14	15	5
	세면대·변기 1실형	2	1	
20	b.u.형	39	76	32
	세면·탈+욕조·변기형		3	
	b.u.+세·변 1실형		1	2
30	b.u.형	30	62	13
	b.u.+세·변 1실형	3	13	41
	2b.u.형	11	3	
	세면·탈+욕조·변기형	3	3	
40	b.u.형	1		
	b.u.+세·변 1실형		7	
	2b.u.형	23	18	16
	세면·탈+욕조·변기+b.u.형		1	
50	2b.u.형	19	14	2
	세면·탈+욕·변기+b.u.형	2		1
	b.u.+세·변 1실형			1
60	2b.u.형	9	5	1
	세면·탈+욕·변기+b.u.형	1		

*탈: 탈의실의 약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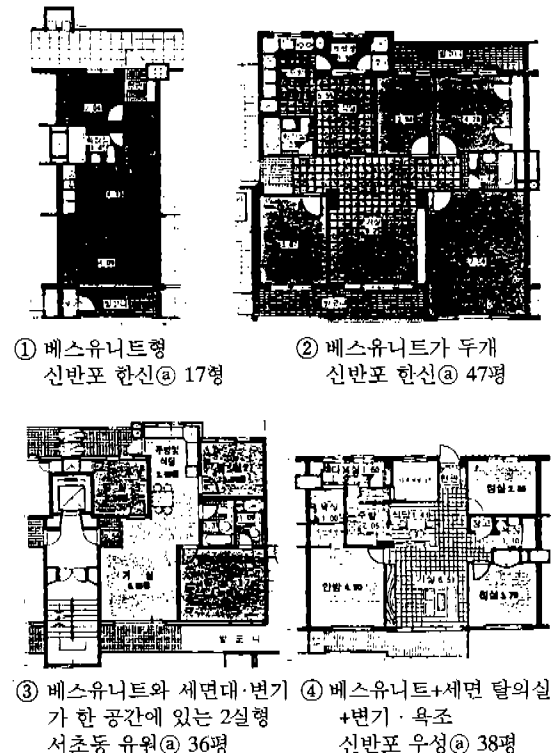


그림 1. 아파트 규모별 옥실 형태의 예.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30평형대의 경우는 다른 평형대와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욕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40평형대는 욕실 수가 대부분 두 개로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일반적이었다. 연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90년대가 되면서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50평형대와 60평형대의 경우 역시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일반적이었다.

욕실의 수와 욕실 형태의 변화를 연대별로 살펴본 결과 10평형대-30평형대까지는 베스유니트형이 일반적이었고 40평형대부터는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일반적인 형태로 파악되었다.

2. 욕실의 위치

아파트 규모별 욕실의 위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먼저 10평형대의 경우는 70년대 현관 쪽, 80년대 방과 외벽 사이, 그리고 90년대는 두 방사이 혹은 방과 외벽 사이에 주로 욕실이 위치하였다. 70년대의 경우 현관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주택 면적의 협소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20평형대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70, 80, 90년대 모두 두 방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30평형대의 경우는 욕실의 위치가 가장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0년대의 경우는 욕실이 대부분 두 방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과 거실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도 일부 볼 수 있었다. 80년대의 경우 역시 두 방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70년대에 비하여 현관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다소 증가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욕실은 두 방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지않은 경우가 현관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욕실이 두 방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현관 쪽의 순이었다. 40평형대의 경우에는 안방의 부부용 욕실을 제외한 나머지 욕실이 대부분 현관 쪽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안방에 부부용 욕실을 계획하면서 별도의 욕실을 손님용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였다. 연대별로 보면, 70년대-80년대 사이에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90년대에 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0, 60평형대의 경우도 부부용 욕실 이외의 욕실의 위치는 대부분 현관 쪽이었다.

욕실의 위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0평

표 3. 아파트 규모별 욕실의 위치

평형대	욕실의 위치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	현관쪽	9	4	
	방과 식당사이	5	3	1
	다용도실과 방사이		1	
	두 방사이	2	3	2
20	방과 벽사이		5	2
	현관쪽	5	11	1
	방과 식당사이	3	1	
	방과 거실사이	5		
30	두 방사이	25	67	33
	방과 벽사이	1	1	
	현관쪽	5	17	10
	방과 식당사이	2		
40	방과 거실사이	9	7	
	두 방사이	28	57	44
	방과 외벽사이	2		
	다용도실과 벽사이	1		
50	현관쪽	17	25	12
	방과 식당사이	5		
	방과 거실사이		1	
	두 방사이	2	4	4
60	현관쪽	18	17	1
	방과 식당사이	3	2	
	두방사이			2
70	방과 외벽사이			1
	현관쪽	8	3	1
80	방과 주방사이	2	2	

형대는 전체 면적의 협소함으로 하나 뿐인 욕실을 현관 쪽에 위치시켰으며 20평형대-30평형대의 경우는 욕실을 침실권에 두고 있었다. 40평형대는 안방에 부부용 욕실을 계획하면서 나머지 하나의 욕실은 손님용 화장실에 대한 고려로 현관 쪽에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3. 욕실 문의 개폐 방향

주택 내 욕실의 위치는 거주자와 방문자들이 얼마큼 욕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와 주로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욕실 문의 개폐 방향 즉, 욕실에서 나올 때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욕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욕실 문의 개폐 방향은 되도록 타인과의 부딪힘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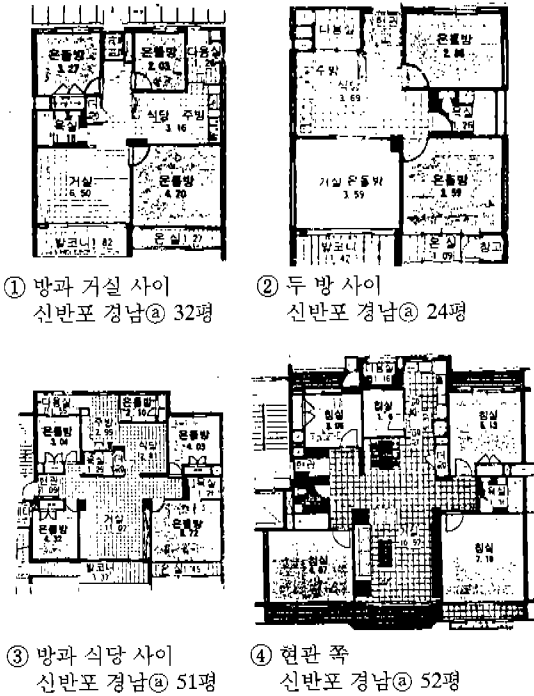


그림 2. 아파트 규모별 욕실 위치의 예.

람지할 것으로 본다.

아파트 규모별 욕실 문의 개폐 방향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10평형대의 경우는 욕실 문의 개폐 방향이 70년대에는 거실 쪽, 80년대에는 주방 및 식당 쪽 그리고 90년대에도 역시 주방 및 식당 쪽이었다. 욕실 문의 거실쪽을 향하여 열리는 경우는 욕실을 사용할 때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10평형대의 경우는 면적의 협소함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20평형대의 경우는 70, 80, 90년대 모두 주방 및 식당 쪽으로 개폐되었다. 이것은 30평형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이었다.

그러다가 40평형대부터 욕실 문의 위치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의 추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에는 욕실 문의 복도에 위치하는 앞방의 문과 바로 마주보고 있었으나 80년대를 거쳐 90년대가 되면서 복도의 벽과 마주보도록 계획함으로써 탈의실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의 욕실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타인과 부딪히는 불편함이 크게 감소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50평형대, 60평형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즉, 50평형대, 60평형대의 경우는 70, 80, 90년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욕실 문을

표 4. 아파트 규모별 욕실 문의 개폐방향

평형대	개폐 방향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	거실	6		
	복도(벽)	4	3	1
	복도(앞방)	4		
	주방 및 식당	2	10	4
	현관		3	
20	거실	4		
	복도(벽)	5	6	
	복도(앞방)	2	7	
	주방 및 식당	26	52	26
	현관	2	16	7
30	거실	2	4	5
	복도(벽)	12	6	6
	복도(앞방)	5	8	4
	주방 및 식당	24	40	16
	현관	4	23	23
40	거실	3	1	1
	복도(벽)	7	21	11
	복도(앞방)	14	4	
	현관		3	4
	50	거실	2	1
복도(벽)		15	12	2
복도(앞방)		4		
현관		1		2
60		복도(벽)	4	4
	복도(앞방)	6	1	

복도의 벽과 마주보도록 계획한 경우가 많았다.

4. 욕실 면적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욕실의 적정 면적은 각 연구마다 사용자의 인체 치수, 기구의 규격, 동작 치수 등이 다른 이유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의 가족 특성이나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규모별 욕실의 면적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0평형대를 살펴보면 베스유니트형의 경우 70년대의 1.23평에서 80년대에 1.26평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90년대는 다시 1.23평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은 70년대는 0.67평이었으나 80년대는 0.95평으로 다소 증가한 경향이였다.

다음으로 20평형대를 살펴보면, 먼저 베스유니트형의 경우 70년대의 1.31평에서 80년대는 1.40평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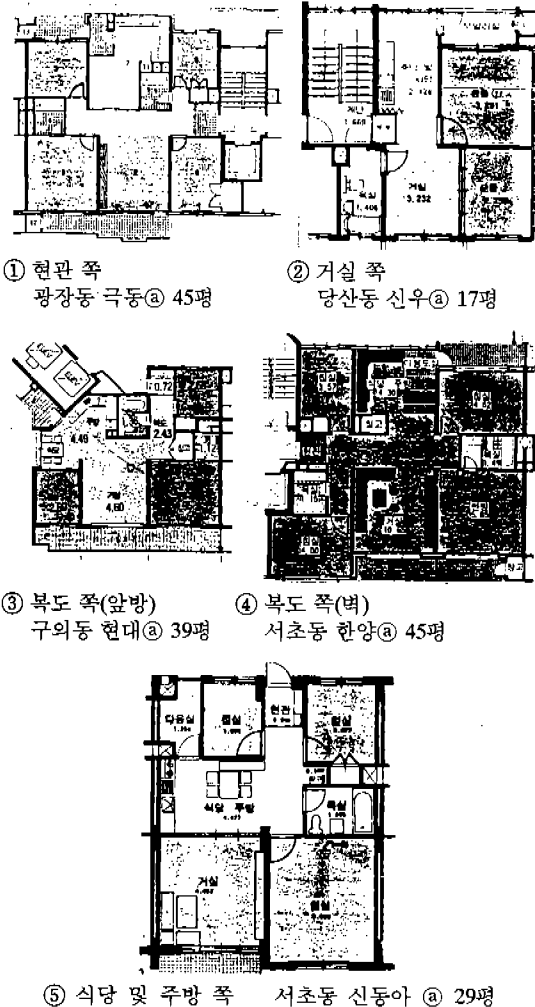


그림 3. 아파트 규모별 욕실문 개폐 방향의 예.

로 증가하였다가 90년대는 1.33평으로 다시 감소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볼때 70년대보다는 약간 증가한 경향이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은 70년대의 2.16평에서 90년대에는 2.04평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30평형대의 경우는 욕실의 형태가 가장 다양하여 여러 형태별로 다양한 면적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먼저 베스유니트형의 경우에 70년대의 1.38평에서 80년대는 1.58평으로 0.2평 증가하였다가 90년대는 다시 1.33평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10평형대와 20평형대의 베스유니트형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90년대는

표 5. 아파트 규모별 욕실의 평균 면적

평형대	욕실 형태	70년대 (평)	80년대 (평)	90년대 (평)
10	b.u.형	1.23	1.26	1.23
	세면기·변기 1실형	0.67	0.95	
20	b.u.형	1.31	1.40	1.33
	세면탈의실+욕조·변기형 b.u.+세면대·변기 1실형		2.10	2.04
30	b.u.형	1.38	1.58	1.33
	세면탈의실+욕조·변기형	1.72	2.20	
	b.u.+세면대·변기 1실형 2b.u.형	1.82	2.23	2.32
40	b.u.형	1.67		
	b.u.+세면대·변기 1실형		2.20	
	세면·탈+욕·변+b.u.형 2b.u.형	2.89	3.04	2.82
50	2b.u.형	3.31	3.52	2.73
	세면·탈+욕·변+b.u.형 b.u.+세면대·변기 1실형	3.26		2.49
60	2b.u.형	4.15	3.94	3.75
	세면·탈+욕·변+b.u.형	3.68		

다시 그 면적이 감소한 경향과 유사하다. 특히 90년 이후 건설된 20, 30평형대 아파트의 베스유니트형 욕실은 1.33평으로 그 면적이 동일하였다.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은 70년대 1.82평, 80년대 2.23평, 그리고 90년대는 2.32평으로 점차적으로 그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은 70년대의 2.74평에서 80년대는 2.66평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면탈의실과 욕조·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의 경우는 70년대의 1.72평에서 80년대는 2.20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40평형대의 경우는 베스유니트형,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 세면탈의실과 욕조·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이 각각 한 경우씩만 있어 연대별로 그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40평형대 규모 이상의 전형적인 욕실 형태인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은 70년대의 2.89평에서 80년대는 3.04평으로 증가하였다가 90년대에는 2.82평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서 50평형대의 경우에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은 70년대의 3.31평에서 80년대는 3.52평으로 증

가하였다가 90년대는 2.73평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스유니트가 하나 있고 그 외 세면탈의실과 욕조·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 역시 70년대의 3.26평에서 90년대는 2.49평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각 평형대별로 대부분의 욕실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는 60평형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60평형대의 경우 70년대에는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의 평균 면적이 4.15평이었다가 80년대에는 3.94평으로 그리고 90년대에는 3.75평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규모별 욕실 면적을 분석한 결과 30평형대의 경우에 베스유니트형과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 그리고 10평형대의 경우에 세면대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연대별 욕실 면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

아파트 규모별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10평형대에는 탈의실이 계획된 경우가 없었으며 20평형대부터 탈의실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 빈도가 적었으며 그 형태는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탈의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0평형대의 탈의실 형태는 세 가지로 안방에 탈의실이 있고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 그리고 독립된 베스유니트에 탈의실이 연결된 형태이었다. 이들 형태 중에서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에서만 연대별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는데 70년대의 0.56평에서 80년대는 0.76평으로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40평형대의 탈의실 형태는 세 가지이었다. 즉,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그리고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이었다. 면적의 변화를 보면, 먼저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의 0.78평에서 80년대는 0.72평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의 1.30평에서 80년대는 1.36평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는 80년대에만 계획되어 있어 연대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리고 50평형대 탈의실의 형태 역시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두 방에서 통하는

표 6. 아파트 규모별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

평형대	탈의실의 형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빈도 비율 (%)
		빈도	평균 면적 (평)	비율 (%)	빈도	평균 면적 (평)	비율 (%)	빈도	평균 면적 (평)	비율 (%)	
20	세면탈의실+욕·변기				3/80	0.71	2.73				1.96
30	안방+탈의실+b.u.	2/47	0.88	2.59							4.40
	세면탈의실+욕·변기 탈의실+b.u.	3/47	0.56	2.45	2/79	0.76	1.11				
40	안방+탈의실+b.u.	4/24	0.78	1.74	2/26	0.72	1.62				15.20
	두방에서통·탈+b.u.	1/24	1.30	2.89	2/26	1.36	2.84				
	세면탈의실+욕·변기				1/26	1.54	3.35				
50	안방+탈의실+b.u.	7/21	1.10	2.13	3/14	0.97	1.87				51.30
	두방에서통·탈+b.u.	3/21	0.81	1.53	4/14	1.37	2.46				
	세면탈의실+욕·변기	2/21	0.70	1.39				1/14	0.60	1.13	
60	안방+탈의실+b.u.	7/10	1.13	1.79	2/5	1.40	14.20				81.30
	두방에서통·탈+b.u.	1/10	2.67	3.99	1/5	1.50	2.42				
	세면탈의실+욕·변기										
	세면탈의실+욕·변기+안방+탈의실+b.u.	1/10	1.20	2.00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그리고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 등이었다. 먼저,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에는 1.10평으로 40평형대의 경우보다 다소 넓었으나 80년대가 되면서 0.97평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의 0.81평에서 80년대에는 1.37평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 역시 70년대의 0.70평에서 90년대에는 0.60평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60평형대의 탈의실 형태는 네 가지로 전 평형대 중 탈의실의 형태가 가장 다양하였다. 즉,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연결된 형태 그리고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이 하나 있고 또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가 하나 더 있는 형태 등이었다. 이 중에서 두가지 형태가 연대별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먼저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의 1.13평에서 80년대에는 1.40평으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가 연결된 형태는 70년대에는 2.67평, 80년대에는 1.50평 그리고 90년대에는 0.98평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탈의실이 계획되었던 빈도와 면적은 주택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든 평형대에서 대부분 탈의실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으며 가장 큰 평형대인 60평형대에서도 탈의실의 면적이 연대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규모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형태는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형이 연결된 형태이었고 그 다음은 두 방에서 통하는 탈의실에 베스유니트형이 연결된 형태 그리고 세면·탈의실에 욕조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 욕실이 연결된 형태의 순이었다.

각 규모별 탈의실의 계획 빈도는 60평형대, 50평형대, 40평형대, 30평형대, 20평형대의 순으로 낮아져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탈의실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의실은 70년대와 80년대에는 30평형대-60평형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거

의 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탈의실의 면적 변화를 연대별로 고찰하기가 어려웠다.

IV. 결 론

각 평면에 대하여 욕실 관련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욕실 계획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는 욕실 수와 형태, 위치, 문의 개폐 방향, 욕실 면적,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의 5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아파트 규모별 욕실 수와 형태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10평형대의 경우 대부분이 베스유니트형 욕실이였다. 주거 면적의 협소함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인 베스유니트형 욕실보다는 10평형대에 적합한 보다 합리적인 형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평형대의 경우도 베스유니트형이 일반적으로 80년대 이후 욕실 수가 두 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0평형대의 경우는 가장 다양한 욕실 형태가 분포되어 있었고 90년 이후 역시 주택 내의 욕실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였다. 40평형대 이상의 규모에서는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일반적이었으나 90년 이후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욕실의 수와 형태를 연대별로 살펴본 결과 각 규모별로 욕실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욕실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30평형대의 경우 욕실 면적을 절약하면서 욕실 두 개의 잇점을 살릴 수 있는 형태인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 2실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0평형대의 경우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욕실 외의 다른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의 욕실 계획시 일률적인 베스유니트형을 계획하는 등 무조건적으로 욕실을 넓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제언한다.

2) 아파트 규모별 욕실의 위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10평형대의 경우는 70년대에 현관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주택 면적의 협소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평형대의 경우는 70-90년대 모두 두 방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30평형대의 경우에 욕실 위치가 가장 다양하였는데 80년대 이후 현관 쪽이 다소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는 두 방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40평형대 이상의 규모에서는 부부용 욕실 이외의 욕실은 대부분 현관 쪽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손님용의 화장실을 고려한 결과로 보였다. 욕실이 점차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주택 내 욕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수가 두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욕실의 수 뿐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욕실을 어떠한 위치에 계획하느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각 규모별 가족 특성에 따른 위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아파트 규모별 욕실 문의 개폐방향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0평형대의 경우는 욕실 문의 개폐 방향이 거실, 주방 및 식당 쪽으로 이는 면적의 협소함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20, 30평형대의 경우는 70-90년대 모두 주방 및 식당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40평형대 이상의 규모부터 욕실 문의 개폐 방향에 변화가 있었는데, 70년대의 경우는 복도에 위치하는 앞방의 문과 마주보도록 되어있었으며 90년대 이후는 복도의 벽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40평형대 이상의 규모에서는 욕실에서 나왔을 때 타인과 부딪히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규모별로 욕실 문의 개폐방향을 살펴본 결과 넓은 규모의 경우는 대부분 욕실 문의 방향이 복도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욕실 출입에 불편함을 덜 수 있으나 10평형대-30평형대의 경우는 거실이나 식당 및 주방 쪽으로 계획되므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10평형대-30평형대 아파트 계획시에는 가족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욕실 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4) 아파트 규모별 욕실 면적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 중 10평형대의 세면대와 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1실형, 그리고 30평형대의 베스유니트형과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욕실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각 규모별 특성에 관계없이 욕실 형태를 일률적으로 계획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10평형대부터 베스유니트형의 욕실을 기본형으로 하여 40평형대 이상의 규모에서는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의 욕실이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다. 즉, 거주자들에 대한 기초 연

구 없이 일률적으로 욕실 형태를 계획한 결과 주택 내의 욕실 면적이 실제적인 필요 이상으로 넓게 계획되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정 욕실면적은 10평 미만-20평 미만인 경우, 약 7-8%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이다. 최근 들어 욕실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욕실의 면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각 규모별로 그 선호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각 규모별 거주자들의 욕실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아파트 규모별 탈의실의 형태와 면적의 변화를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0평형대에는 탈의실이 계획된 경우가 없었으며 20평형대의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그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30평형대-60평형대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탈의실을 볼 수 있었다. 각 규모별로 탈의실이 계획된 빈도는 주택 규모에 비례하였는데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형태는 안방에 탈의실과 베스유니트형 욕실이 연결된 형태이었다. 탈의실의 면적은 전반적으로 주택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나 90년 이후는 전 규모에서 대부분 탈의실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60평형대의 경우는 그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욕실에 탈의실을 계획하여 생활하기 보다는 욕실 외의 생활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쾌적한 욕실 환경에 대한 요구 정도가 점차로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탈의실에 대한 요구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탈의실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욕실 외의 생활 공간을 그 만큼 할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

- 1) 분석 자료로 「아파트 백과」를 사용한 이유는 이 평면집이 1971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시에 건립한 10평형대-60평형대의 아파트 평면을 거의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서울 강남 지역의 욕실 평면을 분석한 결과, 베스유니트형이 45.2%, 베스유니트가 두 개인 형이 39.1% 그리고 베스유니트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2실형이 8.1%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신경주, 1995).

참고문헌

1. 강순주 김상희 住田昌二(1989). 아파트의 욕실 공간과 입욕 방식과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5권 5호 통권 25호.
2. 박혜선(1987). 아파트 서비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3. 백정렬(1987). 집합주택에서 실구성 및 면적 구성비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4. 신경주, 정경숙(1989). 한국인의 입욕법 측면에서 본 아파트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제 7호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5. 심현숙, 신경주(1990). 우리나라 공동주택 욕실공간의 변화 추이.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 서동연(1990). 주택의 욕실 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7. 아파트 백과, 세진기획, 1993.
8. 이영심, 신경주(1990). 한국인을 위한 단독주택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제 8호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9. 이현주(1984). 한국 아파트 거주자들의 욕실 공간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0. 조명은(1993).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 행위실태 분석.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1. 홍진수(1983).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의 bathroom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2. 탁순애(1990). 아파트의 욕실 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